



◆ 미 수은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

미 수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필요한 항공 운송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
동 실무협의회는 지난 2000년 5월 제정된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(AGOA)의 일환으로 미 수은, 무역개발청(TDA) 및 미 교통부(U.S. Department of Transportation)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개국 정부와 민간 실무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항공운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고설비,

보안 증진 및 화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기간설비 구축방안을 협의하였다. 또한 미 수은은 동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미국의 제품 및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.

이번 협의회를 통해 아프리카와 미국간의 직항 운송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동 회의에서 나온 권고안은 금년 1월 모리셔스에서 개최될 차기 AGOA 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.

【워싱턴주재원】